

## 농민시장 현황 및 실태에 관한 고찰

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armers' Market

최윤지\* · 황정임 · 손혜미 · 한송희 · 장보경  
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

Yoon-Ji, Choi\* · Jeong-Im, Hwang · Hye-Mi, Son · Song-Hee, Han · Bo-Gyung, Jang  
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, RDA

농민시장은 공동체지원농업(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, CSA)과 함께 농산물의 대표적인 직거래 장터 유형이다(Hinrichs, 2000). 미국에서는 지역먹을거리운동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. 즉 1994년에 1,755개이었던 농민시장은 2010년에는 6,132개로 16년간 3.5배 성장한 것이다(김원동, 2010). 농민시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지역농업인이 생산한 양질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기에 신선하고 값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. 농민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업생산기반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. 미국에서도 잠시 주춤하던 농민시장의 성장이 농산물의 신선도와 건강성, 가족농의 경제적 어려움,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 지역별로 지역먹을거리체계(local food system)를 구축하고 정착하려는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공간으로서 농민시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.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농민시장의 현황과 실태가 어떠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.

강원도 원주의 원주새벽시장의 경우 1994년에 개장하여 매년 4월에서 12월 10일까지 새벽 4시에서 9시까지 개장한다.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그 운영은 판매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 등록된 판매자들의 수는 약 426명이다. 생산자 실명제와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. 개선점으로는 원주천 주변 둔치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. 강원도 춘천의 춘천번개시장의 경우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4월에서 11월까지 새벽 4시에서 9시까지 개장한다. 판매자수는 최소 10~30명 규모이다. 농업인과 일반상인이 혼재되어 함께 판매하기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부진한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. 충남 서천군의 마서동네 장터는 지자체와 민간협력 모델이며 2009년 4월에 개장하여 매달 15일과 30일날 개장하기에 타 농민시장에 비해 개장일수가 작다는 것이 단점이었다. 이외 김해 새벽시장, 청주(청원)농민시장, 청송군 농민장터, 여주 토요번개시장, 과천 바로마켓 등이 있다. 향후 이러한 농민시장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